島·山의 민속 : 제주도의 신화*

秋 葉 隆
김난희 역**

濟州島는 한반도 남쪽해상에 펼쳐 있는 동서 80㎞ 남북 40㎞ 정도의 화산도로, 옛날에는 耽羅國이라는 一國을 형성했던 곳이었다. 따라서 그 民俗은 半島陸地와는 다르며 고래로부터 특히 南部地域과 관계가 밀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이 섬에 현재까지 살아 숨쉬며 전해 내려 오는 神話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섬의 각 마을에는 本鄕堂이라고 불리우는 마을神의 사당이 있는데 그 곳에 모셔 있는 本鄕神 즉 마을神의 神話가 마을제(村祭)때 巫女에 의해서 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본풀이(本解)라고 한다. 저자가 1931년 10월 이 섬에 건너 와 남쪽 西歸浦에 체재하던 중, 당시 서귀보통학교 교장 川原勘次씨, 교사 李大志씨의 협력을 얻어 男巫 朴奉春이 전승하고 있는 신화 16편을 채록할 수 있었는데 이 16편 속에 2편의 本鄕神話가 들어있다. 서귀리 본향당과 兎山里 본향당 신화이다. 박 무당은 양쪽 마을제에 관계했던 까닭에 동시에 2편의 神話를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서귀리는 섬 남해안 중앙에 위치하는 어촌으로 제주도 제일의 良港으로 부근 일대는 해녀의 본고장이다. 본향당은 마을 배후 구릉 위에 위치해 있으며 本鄕大神·本鄕夫人이란 夫婦神을 모시고 있다. 祭는 1월 1일~2일, 2월 15일, 7월 13일 3회이며, 당일은 主巫 金洙連에 의해서 본향신화가 풀이되고,

---

* 原題 : 《朝鮮民俗誌》, "濟州島神話"에서 발췌

** 제주대학교 전임강사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하여 본향당의 부부신(風神인 男神과 雨神인 女神)과 漁港 기슭에 있는 龍宮夫人인 海神(女神)에게 제를 드린다. 신화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한라산의 風神이 山海萬里 밖인 降雨千里紅土千里地에 高山國이라는 미녀가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 가서 부부인연을 맺었으나 얼마후 처제와 눈이 맞아 어느날 밤 두사람은 한라산으로 도망을 쳤다. 거기에 처인 高山國이 좇아 와서 자매는 온갖 마술을 행하여 싸웠다. 결국 동생의 안개마술이 이겨 언니는 동생에게 池姓으로 改姓할 것을 명하고 서홍리로 물러 가서 그 땅의 수호신이 되었다. 風神과 池山國은 함께 진좌장소를 찾아 헤매던 차에, 사냥꾼인 金奉泰를 만나 일시 그 집에 머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세계는 신이 진좌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해 다시 서홍리에 진좌한 高山國과 상담한 결과, 활을 쏘아 떨어진 곳을 地境으로 정해 高山國은 서홍리를, 風神부부는 동홍리를 지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高山國의 분은 풀리지 않아 이래 동홍리와 서홍리 간의 통혼과 무녀의 왕래를 금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風神부부가 下西歸인 동홍리의 神木에 강림하였기 때문에 상하서귀사람들 신당을 세워 여기에 모시게 되자 해안 水陳浦에 있던 金上皇帝夫人은 용궁을 맡아 오고 가는 배와 해녀를 관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이 신화의 자연적 배경이 한라산을 뒤로 하여 남해에 면해 있는 경승지 서귀포, 1월에서 2월에 걸쳐서 불어 오는 이 섬의 계절풍, 한라산의 雲霧, 大海의 波浪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여기에는 또한 유교의 형식, 도덕에 의해 화석화되지 않은 소박한 섬여인들의 애정과 갈등, 건강한 정열등이 신화의 사회적 요인을 이루고 있어 산촌수렵인들이 모시는 산신과 해녀들이 모시는 해신과의 分化가 극히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토산리는 옛 旌義縣의 일부로 옛날에는 토산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며 이 섬의 무격의 발상지라고 일컬어 지고 있다. 현재는 東中面의 빈곤한 寒村으로 松川이라고 불리우는 작은 계곡을 경계로 토산과 남토산 두마을로 나누어 져 있으나 마을의 성립은 남토산 쪽이 오래된 것 같다. 이 곳의 本鄕堂은 토산당이라고 불리운다. 지금은 堂宇도 없이 三間四方位로 돌담이 쌓여져 있고 한쪽에 입구가 있다. 안에 돌제단이 있고 그 구석에 조그마한 관목의 神樹에 幣帛

이 매듭지어져 있는데 불과하다. 이 근처 마을에는 나무가 많아, 벚꽃, 동백, 대나무숲이 우거져 마치 伊豆나 房州부근의 해안을 연상하게 하는 풍경이다. 이 사당에 모셔 있는 신은 전라남도 나주 교외에 솟아 있는 錦城山이라 불리우는 세개의 봉우리 神山에서 날아 왔다고 하는 세 개의 금방울에서 태어난 三女神이다. 神祭는 연 3회로 3월8일, 6월8일, 11월8일이다. 닭, 떡, 밥, 감주를 제물로 바치며 마을 남녀가 모두 모인 가운데 主巫가 이를 집행하는데 돼지는 금물로 여겨지고 있고 돼지고기를 먹은 자는 제의에 참가할 수 없다. 즉 堂神은 돼지고기를 먹지않고 술도 못마시는 어여쁜 처녀신(姬神)이라고 하지만, 신화에 의하면 그 정체는 蛇神으로 나주영산 龍神의 변형이다.

兎山堂본풀이

나주목사[1]는 해마다 봉고파직을 당하여 사람들은 이를 이상히 여겨 나주목사가 되기를 꺼렸다. 당시 영주에 살던 李목사는 「내가 만일 나주목사가 되면 삼년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이를 자원하였다. 소원대로 나주목사가 되어 임지로 향해 떠났다. 나주영산 앞에 이르니 갑자기 천둥벼락이 치면서 큰비가 쏟아져 내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동행인 형리[2]에게 그 연유를 묻자, 형리는 「이 고을에는 土主官[3]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목사보다 지체높은 土主官이 계시느냐?」

「그것은 神堂 土主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下馬를 하시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목사가 말에서 내리자 마자 하늘이 맑게 개어 무사히 부임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 후 삼일이 지나서 목사는 「신당에 계신 신령이 그리

1) 州에 둔 지방관
2) 地方官衙인 刑房의 衙前, 즉 하급관리
3) 주민이 守令(府尹·牧使·郡守·縣監·縣令의 총칭)을 칭하는 말. 상급의 지방관이다.

도 위엄이 있으시니, 신령을 뵈러 가겠노라」하여, 영산아래에 도착하니 운무가 사방에 충만하여 앞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자 수행한 형리에게 「使道[4]殿에서 독경을 하도록 하라. 만일 사도전에 신령님이 계신다면 이 안개를 걷을 실 것임에 틀림이 없으리라.」고 명하였다. 이리하여 독경의 공덕에 의해 사방에 충만했던 운무가 갑자기 걷히고 시계가 밝아지게 되었다. 영산에 올라 보니 팔층누각과 사방에 풍경을 늘어뜨려 사람의 이목을 놀라게 하는 커다란 궁궐이 있었다. 목사는 세습堂守를 불러 귀신이 있는 곳을 묻자 「귀신을 뵈려면 굿을 하십시오[5]」라는 대답을 듣고, 그 말대로 무당을 불러 굿을 하였다. 그러자 윗턱은 천상에, 아랫턱은 지하에 닿을 정도의 三頭九尾 큰 용신이 출현하였다. 무당이 「저게 바로 귀신입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貝瑠夜光珠를 갖고 계시느냐」

「갖고 계시지마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따위가 무슨 영험이 있어 감히 매년다다 나주목사를 봉고파직 시킬 수 있겠느냐」라며 자객에게 명하여 龍身을 절단하고 堂室까지 불태워 버리자 龍神 갑자기 옥바둑돌로 변하여 青山의 학처럼 날아가 버렸다.

때마침 제주의 姜氏刑房[6]과 韓氏吏房[7]은 進上 上納[8]하러 상경하는 도중 한강에 배를 정박해 두고 뭍에 오르자 어디선가 옥바둑돌 하나가 떨어져 광채가 나는 걸 보고 금부처 종류인 줄 알고 고리짝에 주어넣고 입경하였다. 八道에서 온 進上이 하나같이 물리쳐지는 중에서도 오직 제주토산의 강씨형방과 한씨이방은 진상상납하는데 성공, 소원을 이루고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두사람은 기쁨에 차서 한양을 떠나는 차에 문득 「이렇게 된 것은 반드시 어떤 神靈의 變일 것이리라. 이처럼 성공하게 된 것은 이 신령님 덕분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땅 거칠고 백성 모두 어리석은 제주섬에 이러한 것을 모시고 들어가면 혹시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여 옥바둑돌

4) 부하인 장졸이 主將에 대한 칭호
5) 무당에 의해 신을 제사하는 것
6) 地方官衙인 六房의 하나로, 刑典에 관한 사무관장
7) 地方官衙인 六房의 하나로, 吏典에 관한 사무관장
8) 王에게 토산물을 헌상하는 일.

을 제자리에 돌려 놓았다. 한강에 돌아 와서 배에 오르려니 날씨가 갑자기 험하여져서 풍랑이 일어 백일간 피로운 여행을 계속하여야만 했다. 두 사람은 곤경에 헤매다가 어느 사찰의 대사에게 그 연유를 묻자, 「제주에 奉侍해야 할 神位[9]가 있는데 이를 모시고 가지 않으면 사후 혼백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게 될 것이리.」라는 대답을 들어 깜짝 놀라 동짓달 엄동에 옷을 벗고 한강에 뛰어 들어가 겨우 옥바둑돌을 찾아 내어 선실에 봉안, 갖가지 제물을 받쳤다. 그러자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경쾌한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 두사람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 온 사람처럼 기뻐하며 돛을 올리고 순식간에 제주가까이 다가가는데 뱃사람들 중에 「이는 위엄있는 신위임에 틀림없으나 이대로 제주에 모시고 가면 혹시 위해를 입을 지도 모르고 제주사람들의 원성도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도 있어 결국 옥바둑돌을 바다밑 깊숙이 버리게 되었다. 그러자 폭풍우가 몰아 닥쳐 배는 이제라도 금방 전복될듯한 상태였다. 일동 두렵고 무서워 사력을 다해 山地港에 들어갈려고 해도 불가능하며 朝天에도 김녕에도 입항할 수가 없었다.[10] 파도에 따라 이쪽저쪽을 헤매던 중 旌義與溫里(sin toi)의 거암위에 배가 올려졌다. 전신피로하여 넋빠진 사람들은 죽은듯 돌위에 누워 있었다. 이때 月宮의 시녀인듯한 미녀가 나타나 「강씨형방 한씨이방은 공을 세웠으나……」라고 이야기가 채 끝나기 전에 사라졌다.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이 神은 旌義與溫里에 있는 남발(nam bal) 明位夫人이라는 신에게 처음 나타났다.

「뭐라는 神인가」

「나주영산의 土主本鄕[11]이오」

「무슨 연유로 이곳까지 왔는가」

---

9) 神位는 보통 종이로 만든 神主, 즉 位牌를 말하나 여기서는 神靈이란 의미이다.

10) 山地는 제주 북쪽해안에 있는 주요항, 朝天은 그 동쪽, 金寧은 朝天보다 더 동쪽에 위치한 선착장인데 풍랑이 높을 때는 배를 갖다 댈 수가 없어 섬을 돌아야 할 경우가 있다.

11) 土主本鄕은 産土神에 해당한다. 本鄕은 本貫이라고도 하여 조상의 발상지를 말한다.

「땅구경 물구경 사람구경하러 왔소」

「이곳은 땅도 내 땅이요, 물도 내 물이요, 사람도 모두 내 것이요」

「이 근처에 空地는 없는가」

「兎山下堂이란 곳에 空地가 있소」

「그렇다면 길안내나 해주시오」

明位夫人은 李氏令監通政大夫로 하여금 안내를 시켰다. 여신은 안내인을 따라 토산에 이를 때, 上川의 靈山主都護官[12]이란 神位가 만민을 이끌고 풍악을 즐기다가 아름다운 여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이는 재줏사람이 아니니 뒤좇아 가보리」라 하여 여신의 뒤를 좇아 갔다. 여신은 서둘러 토산의 荒泉에 이르러, 시험삼아 물을 한모금 떠 마셔 보니 그 물맛이 좋아 진좌하기에 적당하다고 결심하여 그곳에 진좌하였다. 이때 上川의 영산주도호관이 뒤좇아 와서 달려들듯이 여신의 손목을 잡아 채니 여신은 「언어도단이군. 양반의[13] 자식인가 中人[14]의 자식인가. 제주는 여자가 혼자서 걸어 다니기도 어려운 곳이군」이라고 호되게 꾸짖고 은장도[15]를 갖고 잡은 손을 갈라 명주[16]수건[17]으로 감싸메고 龍堂근처 바다로 뛰어 들어가 버렸다. 영산주도관은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神位인지도 모르고 그만 무례한 행동을 하고 말았군」이라며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나자 여신은 용당 근처 下堂에 진좌하였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 여신을 찾아 와서 기원하거나 감주 한 잔 빚치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吳座首[18]의 딸은 노비 趙女를 데리고 水望里 늪에 빨래하러 갔다.

---

12) 山主는 산의 소유자, 都護官은 지방의 都護府官인 듯하나 여기서는 산신의 경칭으로 되어있다.

13) 양반은 東班(文班)과 西班(武班)으로 상류 또는 문벌이 높은 자를 말하며 오늘날에서는 富者을 의미한다.

14) 中人은 양반과 常人 사이의 계급

15) 장도는 허리에 차는 작은 칼로 나무·옥·산호·금속등 여러가지로 만들어진다.

16) 비단을 의미한다.

17) 여자의 수건으로, 한반도의 서북지역에서는 이것을 머리에 두른다.

18) 座首는 鄕所의 長으로 나중에 鄕長으로 개칭되었다. 鄕所는 鄕廳이라고도 하며 鄕員(鄕任)이 집무하는 곳. 일본의 村役場에 해당하므로 좌수는 村長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여신은 남해를 바라보다가 다른 나라에서 온 배가 떠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을 일으켜 배를 파선시켜 버렸다. 선인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물에 올라 와, 水望里 늪을 발견하고 물을 뜨러 왔다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빨래하는 것을 보고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하녀는 도망쳤으나 오좌수의 딸은 결국 붙잡히고 말았다. 하녀가 돌아 와 보니 조금전까지 옥황상제의 시녀처럼 자태 곱던 상전아씨의 모습은 간 곳 없고 피에 물든 시체만이 하늘을 향해 누워있을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흔들어 보아도 소용이 없고 아름다운 입술에는 선혈이 흘러 창백한 얼굴과 옷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녀는 큰소리로 통곡하여 「아이고 상전님아[19]. 설운 상전님아」라고 외쳐 불러도 주위는 적막할 뿐이었다. 부모의 슬픔은 한이 없어 정성껏 장사를 지내고 나서도 밤낮으로 슬픔에 젖어 보냈다.

한편, 토산의 강씨형방과 한씨이방은 서로 「누이바꿈(neui-patkum)」으로 결혼한 귀여운 딸하나씩 두고 있었다. 6월 염천하에 두 여인은[20] 보리를 멧돌에 갈고 있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전신의 자유를 잃었다. 급병이라고 생각하여 의사를 불러 온갖 의술을 다해보았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두 여인은 광기를 내어 부모친족의 구별은 물론 마을 사람들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무당을 불러 기도하고 굿을 하자 두 여인은 큰소리로 오라버니들의 한양에 진상하러 왕래하던 일과 오좌수 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나는 지금 山下堂에 들어 와서 그곳을 지키고 있으며, 오좌수딸도 내밑에서 인간의 기록을 맡아보고 있노라. 전에 내가 준 綢緞으로 禮文禮狀[21]을 장만하여 결혼을 했으면서도 햇곡식 공양도 없어[22] 내가 이병을 걸리게 했노라. 내 배게밑 상자에 光明紬·水明紬가 들어 있으니 14일간 굿을 하여 나를 구하도록 하시오」[23]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배게밑 상자를 열어 보니 과연 물명주·광명주가

19) 상전은 노비가 주인을 부르는 칭호.
20) 이 두 여인은 누이바꿈이란 혼인제도로 결혼한 여동생들, 즉 새색시이다.
21) 납폐시에 反物로서 文書를 보낸다.
22) 새로운 것을 구입시는 우선 그 한쪽을 잘라서 신에게 바치는 습관이 있다.
23) 「내 베개밑 상자……」는 병자가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한 이야기라고 한다. 그 이전은 신들려서 말하는 神托이다.

들어 있고 그 속에 만주에미(manjuami)가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지시되로 굿을 하자 열흘 후에 병이 완쾌되었다. 그 신위를 신당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집에서도 日月祖上[24]으로 모시니 두 사람은 추석 대보름 달처럼 어여쁜 효녀 절부가 되어 만인의 상찬을 받았다. 이리하여 마을사람 모두가 앞을 다투어 그 신위를 모시어 상토산·하토산이내·삼사오리[25]를 토산하당으로 삼아 정의마을에 사는 만민이 정성을 다하여 숭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신화는 다음과 같은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一. 나주목사가 나주영산의 토주본향인 大龍을 죽였기 때문에 용신은 옥바둑돌로 변하여 날아 가 버렸다는 이야기

二. 제주토산의 형방이방이 한양에 왕래하는 항해중에 이 옥바둑돌의 신력을 입거나 노여움을 사는 이야기

三. 이 신이 제주도 동남해안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여신으로 화하여 토착의 여신과 교섭하여 토산에 가서 산신에 습격당해 용당에 진좌하는 이야기

四. 그러나 참배하는 자가 한 명도 없자 노한 신이 배를 파선시켜 표착한 선부에 의해 좌수딸이 살해되는 이야기

五. 또 형방이방의 딸들도 이 신의 노여움때문에 병에 걸려 무당을 불러 굿을 한 결과 병이 완쾌되고 효녀절부가 되는 이야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 신을 토산당본향신으로 모시게 되는 줄거리인데 제1단은 무대가 전라도 나주이다. 나주는 이조말년 목사·판관·교수 각1인을 둔 중요지로 그 鎭山인 錦城山에는 유명한 錦城山祠가 있고 上室祠, 中室祠, 下室祠, 國際祠, 禰祖堂의 五祠宇가 있던 곳으로 샤마니즘의 중심지였다. 「동국여지승람」 나주목조에 「고려충렬왕 4년, 神巫에게 신령이 내려 말하기를 '진도탐라 정벌시에 내가 큰 힘이 되었으나 장사들 모두가 상을 받았는 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음은 무슨 연유인가. 나를 定寧公이라고 封하여야만 할 것이다'고. 마을사람인 寶文閣侍郎制 鄭興이 왕에게 고하여 작위를 봉하게 하였다. 그 邑祿米를 모아 해마다 5石을 祠에게

24) 조상은 先祖를 말한다.

25) 상토산은 松川상류에 있는 도산리, 하토산은 하류에 위치한 남토산으로 추정된다.

바쳤다. 매해 봄가을에 降香祝幣하여 제를 지낸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錦城堂 신앙은 고려말부터 성행했던 것 같다. 남토산의 토산당신은 이 錦城山에서 세개의 황금구슬이 날아와서 이 당에 내려와 三女神으로 화한 것이라고 일컬어 지고 있으나 이목사가 조난한 곳이 나주영산 앞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은 지금의 영산포지명과 관계가 있는 神山이 아닌가 한다. 더우기 이처럼 神山 또는 神堂앞을 말을 타고 지날 때 말의 다리가 절뚝거렸다든가 뇌우가 몰아쳤다든가 하는 전설은 각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26] 신에게 제를 올리지 않고는 성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제물을 바쳐 굿을 한 결과 하늘과 땅에 맞닿은 三頭九尾의 大龍神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촌단하고 신당을 소각시키자 용신은 갑자기 옥바둑돌로 변하여 날아 가버리는 것은 소위 말하는 불가사이한 神變으로 칼로 베어도 죽지않고 불태워도 타지않은 神의 본질을 가르켜 주는 기적에 불과하다.

제2단은 무대가 제주도와 육지에 걸쳐 전개되는데 강씨형방과 한씨이방이 한양에 왕래하는 항해중에 일어난 사건이 중심이다. 즉 두사람이 진상 상납하기 위하여 한양에 상경하던 도중, 나주신당에서 옥바둑돌이 되어 날아 온 용신을 신인줄 모르고 고리짝에 주어 넣고 가니 그 가호에 의해서 만사에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이를 이상히 여겨 강물속에 던져버리자 말자 풍랑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자 깜짝놀래 다시 주워 선실에 봉안하자 바다가 다시 잔잔해지고 선로도 안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가까이 와 또다시 바닷속에 버린 탓에 폭풍우가 몰아쳐 산지, 조천, 김녕등 섬 북쪽에서 동쪽을 빙빙 돌아도 기항할 수 없어 결국 동남에 있는 정의 바닷가에 큰 파도에 의해 던져 올라오게 되었다. 그 때 꿈에 나타난 月宮의 시녀와 같이 아름다운 미녀야말로 실은 그들이 선실에 봉안했던 나주영산의 용신이었던 것이었다.

제3단은 제주도 동남해안을 무대로 한다. 섬에 온 용신은 토착의 여신 남발明位夫人에게서 토산하당에 공지가 있음을 듣고 그곳으로 향한다. 그러나 상천의 산신에게 습격을 받아 격노하여 용왕바다에 들어가 용당근처의 하당에

26) 예를 들면 제주와 대정 경계에 있던 차귀당앞을 승마한 채로 지나가다가 말이 절뚝거렸다는 이야기등이다.

진좌하였으나 토민은 아무도 이를 모시는 자가 없었다.

제4단에 있어서 이 神이 노하여 해상에 떠있는 큰배를 격파전복시켜 그 결과 표착한 선부들에 의해서 토산의 촌장딸이 죽게 되는 흉변이 일어난다.

제5단은 강씨형방 한씨이방의 딸 두 사람도 혼인에 대한 감사의 예물도 바치지 않는 등이 神을 소홀히 한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받아 병에 걸려 미치게 된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하니 신은 배게밑 상자속에 작은 뱀이 되어 모습을 나타낸다. 이를 모시니 병이 완쾌되고 효녀절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 신의 위력에 놀란 마을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이를 모시어 이곳에 아름다운 龍女神이 토산당 본향신으로 진좌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요컨대 이 神은 노하면 뇌우·운무·풍랑을 일으키는 점을 보면 서귀포본향신과 같은 풍우신의 성격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1월에서 2월에 걸쳐 부는 이 계절풍은 도민의 생활 특히 해상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더우기 이 무서운 계절풍은 북서풍으로 전라도쪽에서 불어오는 것이므로 이 神이 전라도 나주영산의 토주본향이라든가 나주 금성산에서 날아 왔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이 계절풍의 방향과 관계하는 신앙이라고 생각된다.

이 풍우신은 남쪽지방에서는 영등할머니(yondeung-halmoni)라고 칭하여 2월에 영등제 또는 風神 내방이라는 風祭을 지내는데 이 늙은 여신은 젊은 딸과 며느리를 동반하는 세여신으로 딸을 동반할 때에는 바람이 세고, 며느리를 동반할 때에는 비가 많다고 전해지고 있어 風燃燈이라고도 불리운다. 제주도에서도 현재 연등할망신앙이 강하게 남아 있어 매년 2월에 神을 맞아 보내는 행사가 있다. 「동국여지승람」 제주목조에도 「二月朔日, 귀덕·김녕지역에서는 木竿열두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여 이를 모신다. 애월에 사는 馬頭 형상을 한 자를 구하여 여러가지 색의 천조각으로 장식하여 말놀이(躍馬戲)를 벌여 신을 즐겁게 한다. 望日이 되어 이를 파한다. 이것을 然燈이라고 부르며, 이달에는 승선을 금한다.」라고 전해진다. 도민은 2月을 영등달이라 하여 생리시에도 바다에 들어가는 해녀도 이 달만은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세탁도 하지 않는다. 또 용신이 바닷속에 있는 조개를 먹는 달이라고 생각하여 해금되어 바다에 들어 가보면 조개껍질이 빈약해져 있는데 이것은 용신이 먹어버린 탓이라고 여

긴다.

그러나 나주신당에서는 천지에 맞닿을 만큼 거대한 대용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풍우여신이 이 신화의 최후에서는 병든 여인의 침상밑에 만주에미라 칭하는 작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풍우신이라는 성격보다는 여인들에게 쉽게 붙는 병마적 성격을 띄고 있어 용두사미의 감이 없지 않다. 이것은 이 섬지방에 많은 뱀신앙에 연유하고 있다. 오늘날 토산당신은 풍우를 관장하고 용신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蛇鬼형태로 믿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섬 남부에 있는 當山峰(실제로는 堂山峰) 기슭에 있었던 遮歸堂의 뱀신이 옆마을 許씨에 의해 절단되어 무수의 작은 뱀으로 변한것 중에서 한마리가 도망와서 이 당의 신이 되었다고도 전해진다. 차귀당에 관해서는 「俗 蛇鬼을 모신다. 가옥의 벽, 대들보, 초석에(屋壁樑礎)에 군서하며 祭時 나타나지 않는 것을 祥이라 한다. 遮歸라는 字는 蛇鬼의 誤字이다[27]」라고 전해져 당산봉은 예전에는 遮歸岳이라 불리웠으며 그 근해를 遮歸浦라 했던 사실도 문헌에 보인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토산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는 한라산 동쪽에 위치한 산림지대로 산뱀이 많아 민가도 土間 중앙에 불을 지피는 火爐을 만든 산촌형으로서 밤중 불을 지펴 뱀의 피해를 막고 의복도 뱀을 피하기 위하여 감색물을 들여 사용하고 있다. 또 섬 곳곳에 사굴이라고 칭하는 동굴이 있어 뱀에 관한 전설이 극히 많다. 동남부의 도민은 아직도 뱀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방언으로 할망(hal man)이라 부르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蛇鬼의 章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신화의 자연적 배경으로는 섬계절풍과 남도산지에 많이 서식하는 뱀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도민생활이 오랫동안 강풍과 산뱀에 시달렸던 사정을 고려하면 고난에 찬 도민의 정신생활의 결정으로서 이러한 신화가 태어난 것이 극히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또 이 신화속에서는 목사·좌수·형방·이방등의 행정기관의 활약, 누이바뀜이라는 혼인제도, 효녀절부의 도덕관, 남녀구별이 희박한 섬의 산신을 야단치는 渡來女神의 노여움

27) 동국여지승람, 대정현성황당의 註. 이 섬의 민속에 대해서는 耽羅志, 濟州風俗錄 등 참조. 그리고 서귀본향당 및 토산당의 신화원문은 졸저 「朝鮮巫俗의 연구」 上卷 (341~369쪽) 참조바람.

등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이 섬의 사회적 성격을 이야기 하는 제요소로 간주된다. 즉, 목사·좌수·형방·이방의 등장은 적어도 이 신화가 이러한 형태를 취하게 된 시대의 도민의 정치의식의 반영으로 아마도 섬의 정치형태와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을 것이다. 목사가 용신의 신위를 두려워 하지 않고 이를 죽이는 이야기는 김녕사굴에도 전해져 내려 오고 있는데 요컨데 목사라고 하는 고관에 의해 대표되는 유교적 상층계급이 민간신앙을 경멸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한편 그 배하에 있는 형리·형방·이방등은 서민적 신앙의 신을 두려워 하고 그 가호에 의해서 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신앙이 여성적이라는 점은 오좌수 딸의 죽음, 강형방, 한이방 딸의 병이 모두 신의 노여움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현재도 토산리 여인들에게는 토산당신이 붙어 다닌다고 하여 타향자는 이들과 결혼하기를 꺼리고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강형방과 한이방이 누이바뀜이라는 혼인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섬의 결혼제도가 반드시 유교적 혼인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섬에 건너 온 여신이 토착산신에게 습격을 당하여 「제주는 여자 혼자서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곳이군」이라며 노여워 하는 점등은 이 섬의 양성관계가 육지의 유교적 성도덕에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제주도민은 본래 「양반의 자식인가? 中人의 자식인가?」라고 질문을 받아도 이에 답할 명확한 계급성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계급관념이 강하고 남녀구별이 엄격한 여신이 이 섬에 건너 왔던 것처럼, 또, 계절풍신이 서북쪽에서 불어 왔던 것과도 같이, 남녀구별의 도덕도, 관료정치의 계급제도도 모두 육지로부터 수입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리하여 섬주민들도 또한 효녀절부란 유교적 이상을 품게 되는 것은 이 신화의 최후결말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으며 이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전라도에서 날아 왔다는 점은 이 섬의 풍우가 매년 반도남쪽 방향에서 불어 오는 것처럼 인간도 문화도 반복하여 반도남부지방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며, 여기서 우리들은 이 섬의 문화성층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